

## 열왕기상 10. ‘솔로몬’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 (왕상 10:1-29)

## 들어가기

열왕기상 10 장은 ‘솔로몬’ 왕국의 가장 부강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본 장은 ‘스바’의 여왕이 친히 사절단을 이끌고 ‘솔로몬’을 찾아와 그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건과 당시 ‘솔로몬’의 권세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, 군사적 증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.

## 1. ‘스바’의 여왕이 직접 ‘솔로몬’ 왕을 찾아왔습니다. (1-13 절)

## 1) ‘스바’의 여왕은 누구였을까?

- ‘스바’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‘셈’족의 국가인 ‘사베엔’ (Sabaeans) 왕국을 가리킴. => 오늘날엔 ‘예멘’으로 추측함.
-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1,9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, 금과 향료와 보석들을 많이 생산해 수출하던 나라였음, (시 72:10, 사 60:6, 렘 6:20, 겔 27:22, etc.)
- 그럼 ‘스바’의 여왕은?
  - 주전 7-8 세기 경의 앗수르 원정 기록 -> 아라비아 여왕이 5 명 등장 (Montgomery)
  - 아라비아의 전설에 의하면 '발키스'란 이름으로 등장 / '아비시니아' (Abyssinia) 전설에 의하면 '마퀴다'란 이름으로도 등장
  - ‘스바’ 여왕은 ‘솔로몬’을 통해 아들을 낳았고, 그 아들이 ‘아비시니아’ 왕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이 있음. -> But!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!! (Winer, Patterson)

## 2) 그럼 ‘스바’의 여왕이 ‘솔로몬’을 직접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?

- 1 절 주목 -> ‘**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** 와서, **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** 하여’
  - ‘여호와와 **이름으로** 말미암은’ -> 원어적 의미 = ‘여호와와 은혜로운 활동에 힘입어’  
- 곧 ‘솔로몬’의 명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(3:12,13)의 결과였다는 것!
  - ‘어려운 문제’ -> 원어적 의미 = ‘수수께끼’ 또는 ‘비유’  
- 아라비아 문학에는 세련된 대화 방식으로 풍부한 수수께끼와 비유적 속담을 사용!  
- 당시 ‘스바’의 여왕은 그와 같은 수수께끼와 비유들을 통해 나름 ‘솔로몬’의 지혜를 확인해 보며, 평소 자신이 고민했던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!
- 참고: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한 ‘스바’ 여왕의 자세를 칭찬 + 인정하심!
  - ‘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,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’ (마태복음 12 장 42 절)
  - 우리도 ‘스바’ 여왕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성도들이 됩시다!

## 3) ‘스바’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보물들을 낙타에 싣고, ‘솔로몬’을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.(2-3 절)

- 3 절 주목 -> ‘솔로몬이....., **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**’
  - ‘대답하다’ -> 원어적 의미 = (히) ‘니가드’ = '풀다', '알게 하다'는 뜻!
  - 이 단어는 ‘요셉’과 ‘다니엘’이 꿈을 해몽할 때에 사용된 단어 (창 41:24, 단 5:12)
  - 곧 하나님께서 ‘솔로몬’에게 지혜를 주시니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 알게 하셨다는 것!
- 4) ‘스바’의 여왕은 ‘솔로몬’의 지혜뿐 아니라, 왕궁과 음식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립한 것과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. (4-5 절)
  - 특별히 5 절 마지막 주목! -> ‘...**,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총계를 보고 크게 감동**’
  - 두 가지 해석
    - 70 인역(LXX)을 비롯한 고대 역본들: 이 구절을 '여호와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'로 번역!
      - '올라 가는 총계' 라는 말은 '드리는 번제' 라는 뜻으로도 번역가능
    - 그러나 문맥상 그대로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총계로 해석하자는 주장
      - 역대하 9 장 4 절, 에스겔 40 장 26 을 근거
      - 매우 예술적이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총계는 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을 것! (Keil, Bahr..)
- 5) ‘스바’의 여왕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도 더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(6-7 절)
  - 성도의 삶은 진실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!
- 6) ‘스바’의 여왕은 가지고 많은 예물을 ‘솔로몬’에게 드리고, 하나님을 찬양하며,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. (8-10 절)
  - 성경 -> ‘스바’의 여왕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린 이가 없다’고 기록함 (10 절).
  - 그녀는 ‘솔로몬’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보고 친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함! (9 절)
    - 7 절 주목! -> ‘**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...**,’
      - 처음에는 ‘솔로몬’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음 -> 아마도 과장되었다고 생각한 듯!
      - 그러나 직접 ‘솔로몬’을 만나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해 보니, ‘솔로몬’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!
- 7) ‘솔로몬’은 친히 자신을 찾아온 ‘스바’의 여왕에게 규례대로 예물을 주고, ‘스바’와 오빌에서 히람의 배를 통해 백단목과 보석’을 비롯한 다양한 무역들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.
  - 12 절 주목 -> ‘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,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...,’
    - ‘백단목’은 인도와 실로(Ceylon)가 원산지인 '붉은 백단향 나무' 곧 '자단목'(Red sandal-wood)과 같은 종류의 나무로 추정되며,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단단하고 나무 결이 고와 악기 제조에 적합함
    - 솔로몬은 이 나무로 노래하는 자를 위한 악기를 만들 -> 전문적인 연주자들과 음악가들을 양성했다는 것! -> 그런데 이들은 다윗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들!

## 2. ‘솔로몬’의 부와 권세를 상징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 (14-29 절)

- 1) ‘솔로몬’이 걷은 세금 (14-15 절)

- 14 절 -> ‘솔로몬’이 걷은 세금의 무게’ = 금 \_\_\_\_\_달란트!
  - ‘솔로몬’은 온 이스라엘을 12 지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에서 왕궁의 필요한 물자를 한 달씩 담당하게 함.
  - 그 외에도 전통대로 12 관장을 세워 모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임. (삼상 8:15)
- 참고: 금 666 달란트
  - 현대의 화폐 가치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-> Living Bible => 2 천만 달러로 번역함
  - 당시 금 1 달란트의 무게는 34.3kg, = 은 45,000 세겔에 해당하는 금액
    - 은 30 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 => 금 1 달란트는 약 노예 1,500 명의 몸값!
  - 참고: 어떤 이단들 -> 솔로몬의 세금 666 달란트를 계시록의 '666'(짐승의 수)과 비교!
    - > But! 이것은 매우 지나친 해석임!!!
- 15 절 -> 이 외에도 ‘솔로몬’은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,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관세와 조공을 받아 들임.

## 2) ‘솔로몬’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증거들 (16- 25 절)

### ①. 금으로 만든 방패들 (16-17 절)

- 큰 방패 200 개 + 작은 방패 300 개
  - 큰 방패는 사람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
  - 이 방패들은 전쟁에 사용하려고 제작했다기 보다는 ‘솔로몬’의 근위병들이 왕을 모실 때 사용함으로 ‘솔로몬’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.
- 따라서 이 방패들은 평소에는 레바논 나무 궁에 보관되었음.
  - But! ‘르호보암’때 애굽 왕 ‘시삭’에 의해 모두 다 탈취당하게 됨! (왕상 14:26)

### ②. 금과 상아로 만든 ‘솔로몬’의 큰 보좌

- 19-20 절 주목!
 

‘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,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,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,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,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,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’

- 참고: ‘솔로몬’의 보좌와 관련한 학자들의 흥미로운 견해 몇 가지

- a) ‘솔로몬’ 이전에는 그 누구도 보좌를 사용하지 않았음!
  - 이스라엘은 유목민족! -> 관습상 웅크리고 둘러 앉거나 기대어 앉음. (Hammond).
  - 다윗도 살아생전 보좌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음! -> 그런데 상아로 만든 큰 보좌?
- b) 보좌의 모양을 주목!
  - ‘보좌 뒤에 둥근 머리’ => 고대 근동에서 권력의 상징이던 황소의 머리가 장식된 것으로 추측 (Montgomery, Toombs, etc)
  - ‘팔걸이’ =>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왕의 보좌들엔 팔걸이가 없음!
    - > 따라서 이는 애굽의 바로 왕의 보좌를 본 딴 것으로 추측 (Toombs)

- ‘보좌 좌우의 사자들’ = 히브리 사상 (성경)은 사자는 통치와 심판을 상징.
- ‘보좌 좌우 편의 6 개의 계단과 6 개의 사자들’
- > 보좌 아래에 6 개의 계단이 있고 각 계단 좌우에 12 지파를 상징하는 사자 상!  
따라서 ‘솔로몬’의 보좌는 이 여섯 계단 맨 위에 있기에 총 7 층 구조가 됨!!
- > 그런데 이런 7 층 구조는 바벨론의 우주관과 신전 구조에서 많이 나타남!

- 아무튼 중요한 것은 ‘솔로몬’의 보좌는 그 자체가 ‘솔로몬’의 왕권과 위엄, 권위를 상징하기에 충분한 것!! -> 성경은 이와 같은 보좌가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고 증언함!  
-> 이전까진 12 지파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왕권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!

③. ‘솔로몬’ 시대에는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!

- ‘솔로몬’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, 은 기물이 없었음!
- 27 절 -> ‘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’ 함!
- 22 절 -> 3 년마다 ‘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’을 예루살렘으로 실어 옴!
- 23 절 -> ‘솔로몬’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증언!
- 24 절 -> 그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‘솔로몬’을 보기 위해 찾아옴!

3) ‘솔로몬’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증거들 (26-29 절)

①. 병거와 마병을 모음!

- 병거 1400 대, 마병이 12000 명 => 병거성과 예루살렘 성에 배치함!

②. ‘솔로몬’의 상인들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임!

- 병거는 한 대에 은 600 세겔, 말은 한 필에 은 150 세겔을 지불함.
- ‘솔로몬’은 이 말과 병거들을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함! (무기상?)

4) 그런데 이런 ‘솔로몬’의 행동들은 신명기의 규례를 명백하게 어긴 것!

- 신명기 17 장 14-20 절: 이스라엘의 왕이 지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!

- ①.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!
- ②.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!
- ③.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!
- ④. 자기를 위하여 은, 금을 많이 쌓지 말 것!
- ⑤. 주의 율법과 계명을 항상 가까이 하며 배울 것!
- ⑥.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, 좌우로 치우치지 말 것!

3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?

4. 중보기도 나눔